

강진아트홀 17개 입주단체에 '공짜 사무실'

개관후 3년간 임대료·공공요금 3억원 징수 안해
대부분 郡 보조금 받는 단체... '이중 지원' 비난도

충분한 준비없이 건립했다가 20년 동안 1152억원을 갚아줘야 할 처지에 놓인 강진 아트홀이 입주단체들로부터 3년째 임대료와 공공요금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계획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 임대 수입을 낼 수 있는데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전기·수도 요금조차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7일 강진군은 "강진 아트홀에 입주한 17개 단체의 임대료·공공요금 3억원을 징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1년 5월 개관 이후 지역 사회단체들을 강진아트홀에 입주 시킨 뒤 지난해 말까지 단 한 푼의 임대료·공공요금도 받지 않았다.

사회단체들에게 강진 아트홀에 마련된 사무실을 내주면서 단체별로 전기·수도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혀 만들지 않아 요금을 부과하

지 못했다는 게 군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군이 강진 아트홀의 연간 공공요금으로 사용한 예산은 2억7098만원이었는데, 제대로 입주단체에게 요금을 부과했다면 이 예산을 전액 아낄 수 있었다.

특히 바르게살기 운동, 새마을자회, 자유총연맹, 지방행정 동우회, 민주평통, 의정 동우회, 무궁 수훈자회, 강진군 변영회 등 입주단체 대부분이 군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과 무료 사무실을 제공한 '이중 지원'이라는 논란도 낳고 있다.

아트홀의 특성상 문화단체들의 입주가 더 많아야 하지만 정작 문화단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정단체에 무료로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올 1월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진 아트홀은 건립 당시부터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임대형



강진군이 강진 아트홀의 입주 사회단체들로부터 지난 3년간 3억여원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진아트홀 전경. <광주일보 자료>

민간 투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이 추진된 강진아트홀의 총 공사비는 460억원에 달했다.

또 매년 평균 임대료 40억원과 운영비 18억원 등 연간 약 58억을 20년간 갚아야

한다. 이 금액만 1152억원이량된다. 대행사에게 줘야 할 운영비도 355억원에 달하고 매년 아트홀 공연과 전시회를 위해 평균 3억~5억원의 예산이 쓰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배수펌프 교체·전선 지중화 370억 국비 지원 요청 영암군 대불산단 현안 해결 팔 걷었다

전동평 영암군수가 대불 국가산업단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전 군수는 지난 5월 대불 국가산단을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에게 370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7일 영암군에 따르면 대불 국가산단 내 배수펌프장은 20여 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로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시 배수능력이 부족해 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당초 농경지 침수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국가산단 및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국가산단 및 인접 주거지의 막대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과 함께 배수펌프장 증설 및 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27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전 군수는 대불산단에서 생산되는 대형 조선블록 등의 물류 수송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시절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바 있는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100억 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행 혁신산단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비율이 50%에 불과해 대불산단 혁신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70% 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동평 군수는 "대불산단을 혁신산단으로 탈바꿈시켜 업종 다각화와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전동평(가운데) 영암군수가 최근 대불 국가산단내 업체를 방문해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영암군은 대불 국가산단내 배수펌프장 증설과 전선 지중화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암산단>

전남산 생표고버섯 통합브랜드 만든다

생산지별 난립 경쟁력 추락
道 명품화로 인지도 높이기
용량별 포장 디자인도 개발



장흥 표고버섯

전국 표고버섯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전남도가 지역 생산 생표고버섯을 명품화하기 위해 통합 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을 개발한다.

전남도는 7일 "건표고보다 생표고의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이 부족해 타 지역 생산 표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통합브랜드 개발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는 그동안 원목 표고버섯 생산으로 건표고버섯 생산·유통이 주를 이뤘으나 인건비 및 원목 가격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돼 원목 표고버섯 생산이 줄고 있으며, 대신 소득이 높고 연중 재배가 가능한 톱배지 표고버섯 생산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장흥·강진·곡성·보성 등 표고버섯 주산지별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별 개별 브랜드가 난립하고 아예 브랜드 없는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전남산 생표고버섯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생표고버섯 출하시 플라스틱 재질의 컨테이너 상자와 소비자 택배용 소포장 용기를 질이 낮은 일반 발포 스티로폼 수지(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해 지역에서 생산된 명품 표고버섯이 그 가치를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산 생표고버섯의 특성, 청정 지역 이미지, 안전한 먹거리,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한 통합브랜드와 사용에 맞는 용량별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전남산 표고버섯의 명품화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전남지역은 표고버섯 대표 생산지 장흥을 중심으로 800여 농가 1000ha에서 연간 건표고버섯 588t, 생표고버섯 1570t 등 2158t의 표고버섯을 생산해 연간 352억원의 소득을 얻어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재배면적의 46%인 460여 ha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이 친환경 제품이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브랜드와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어 이번에 도에서 개발하는 통합브랜드와 포장 디자인이 전남 생표고버섯의 명품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임산물의 명품화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리 앞바다 개막이 행사 장흥군 태풍 '할롱'으로 취소

제11호 태풍 '할롱' 북상에 따라 9일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개막이 체험행사가 취소됐다.

장흥군은 "앞서 지나간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인해 개막이 그물이 크게 파손되고, 태풍 '할롱' 북상에 따른 기상악화로 인해 개막이 체험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개막이 체험행사에는 1200여명의 관광객들이 몰렸다.

신리 개막이 체험행사는 1000ha 규모의 갯벌위에 4km 길이의 그물을 둘러 설치하고 밀물 때 바닷물을 따라 들어온 물고기 떼를 썰물 때 그물을 끌어올려 갠하도록 해 잡는다.

장흥군은 어업의 소득증상과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목적으로 매년 여름휴가철에 맞춰 2~3회 바닷가 전래 어업인 개막이 갯벌체험 행사를 개최해왔다.

2015년부터는 어촌체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미니 개막이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연중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세 얼굴

"10년후 먹고 살 수 있는 정책 발굴 주력"

정승준 강진부군수

"기초에 충실하며 청렴한 자세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강진군 정승준(58) 신임 부군수는 "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 슬로건 아래 10년, 20년 후 강진이 먹고 살 수 있는 온리(Only) 1, 베스트(Best) 1 정책 발굴에 열정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부군수는 공직자들에게 "공직적 가치"를 당부하며 "스치면서 웃고, 마주칠 때 웃고, 일부러 웃는" 스타일 운동을 적극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영광 출신인 정 부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5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도 정책기획관, 신안군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 (보증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 양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풀오피스 편백 3월준공 매매가 7억3천
-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 나주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지역 88평 매매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월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 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 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무인텔 적합지 생암동 1787㎡(540) 은행 7억2천 위치는 최고임 공시지가 14억 3천 상당원할 12억 6천
- 유동 병원, 사옥 적합지 769㎡(240) 건물 ㎡(818) 15억
- 북구 병원, 요양시설 적합지 1057㎡(320) 건물 6487㎡ 34억
- 화정역 부근 6차선 도로 준주거 1105㎡(334) 건물 423㎡(128) 식당, 병원, 오피스텔 등 적합
- 오양병원 땅 21000㎡(6370) 병원 2693㎡(816) 150병상, 신축할 병원은 400병상 허가있음 감정 42억선 대출 26억 자산 감정 53억선 매도 42억 직접 상담 원할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 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오피스텔 등 적합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8㎡(1200) 18억 2천
- 금남로 4가 대로 대지 317㎡(97) 건평 1235㎡(363) 15억

투자 / 매도 / 교환

- 차평중학교근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천 수익 5억2천
- 광주역앞 소방도점 상업지 448㎡(135) 원룸, 생활주택 적합 평당 250만원 (3억3700)
- 쌍촌동 5.18공원24-1번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가게와 인접 원룸 15개 5억 4천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 건물 418㎡(126) 인접과 원룸 5개 투룸 4개 대출1억5천 매도 5억4천
- 조선대 앞 동명동 대로변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외원룸 18개 보증금 1억2천선 월 500천 수익 8억7천

임대

- 쌍촌동 기도생활주택 1.2차 임대, 매매, 임대는 보증금 500 월 40선이나 임대조건은 조정 호털급 시설, 사생활 보호에 완벽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서관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 첨단 중심상권 1층 구분점포 85㎡ 매3.5억(보5천, 월150만포함)
- ▶ 셀프세차장 640㎡ 8억5천 (방문상담요망)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렌차이즈 입점)
- ▶ 서구 쌍촌동 5층 상가주택 매 6.8억(보 2100만, 월400만포함)
- ▶ 서구 풍암동 대로변 3층건물 매 9.7억(보5천, 월520만포함)
-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매 40억 (보4억 월2,000만)
- ▶ 상무, 첨단 대형물건 다수보유(매수상담환영)

대지/전답

- ▶ 북구 용두동 1중주거지역 답 1,990㎡ 매매 6억 6천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매 16억
-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매54억(병원최적)
-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5,000㎡ 매매 12억(창고적합)
- ▶ 북구 용전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매 29억(4기리코너)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매 6억5천
-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29,800㎡ 매매39억
- ▶ 서구 마북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0억
-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매 16억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